CoolHan GmbH

E-INVOICE · E-RECHNUNG

독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한 번에 끝내세요

2025년부터 모든 독일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ERP가 없어도, 기존 SAP를 그대로 써도 — CoolHan이 수신·검증·발행·보관을 자동화합니다.

- ✓ EN 16931 검증
- ✓ XRechnung · ZUGFeRD
- ✓ Peppol 발행
- ✓ GoBD 보관
- ✓ 한국어 지원

Frankfurt 중심 · 유럽 전역

webmaster [at] coolhan.de · coolhan.eu

왜 지금인가

전자세금계산서,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독일은 성장기회법(Wachstumschancengesetz)으로 B2B 전자세금계산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했습니다. 준비가 늦으면 거래처가 보낸 청구서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법적 효력이 없는 청구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2025 시행 중

수신 의무

모든 독일 사업자는 EN 16931 표준 전자세금계산서를 받고 보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이·단순 PDF는 정식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2027 예정

발행 의무

전년 매출 8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은 B2B 거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028 예정

전면 의무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독일 사업자가 발행 의무 대상이 됩니다. 경과조치 종료.

핵심 해결

ERP가 없어도, 기존 SAP만 써도 됩니다

- 거래처 SAP·ERP에 **직접 접근 불필요** — 방화벽 환경 그대로 유지합니다.
- 전용 이메일로 보내거나, ERP에 **내보내기 버튼 1개**만 추가하면 됩니다.
- 겉은 같은 PDF, 속에 XML이 든 **ZUGFeRD**로 발행 — 거래처도 그대로 열람합니다.
- 담당자·거래처별 **여러 이메일**을 등록해도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합니다.

기존 PDF에는 XML이 없습니다. 그래서 PDF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인보이스 데이터로 CoolHan이 표준 XML(XRechnung/ZUGFeRD)을 새로 만듭니다. ERP에 XML 생성 기능이 없어도 됩니다.

인보이스는 민감 정보입니다. 저장 시 암호화, 접근 감사 기록, 변조 방지 보관으로 안전하게 다룹니다.

작동 방식

3단계면 끝납니다

1

보냅니다

거래처가 인보이스를 전용 이메일로 보내거나 ERP에서 데이터를 내보냅니다. ERP가 없으면 간편 작성 폼으로 직접 만듭니다.

2

자동 처리합니다

형식 자동 인식 → 표준 검증 → XRechnung·ZUGFeRD 변환 → 이메일·Peppol 발행. 오류 건은 자동 격리·재처리.

3

확인·보관합니다

웹 포털에서 건별 상태를 확인하고, 원본 XML은 GoBD 기준으로 장기 보관됩니다.

핵심 기능

수신부터 발행·보관까지, 하나로

수신 자동화

이메일·업로드 자동 인식, ZUGFeRD PDF에서 XML 추출.

표준 검증 게이트

EN 16931 + XRechnung BR-DE를 공식 KoSIT 룰로 검증.

XRechnung·ZUGFeRD

인보이스 데이터로 표준 XML·하이브리드 PDF 생성.

Peppol 발행

Leitweg-ID 라우팅, 인증 서비스 제공자 전송.

포털·상태 추적

건별 처리 흐름과 사람이 읽는 청구서 화면.

GoBD 장기 보관

변조 방지·해시 검증·감사 추적.

DATEV 연계

회계사무소 기장 자동화를 위한 데이터 전달.

다중 메일함

담당자·거래처별 여러 이메일 일괄 처리.

보안 우선

AES-256 암호화·접근 감사·2단계 인증.

왜 COOLHAN 인가

KR

한국어 상담

독일 법규를 한국어로 설명하고 끝까지 지원

+

기존 시스템 유지

SAP·ERP·Outlook 그대로, 메일·파일로 연결

€

합리적 정액

예측 가능한 올인클루시브 요금 지향

EU

독일 현지 파트너

프랑크푸르트 중심, 유럽 전역 지원